

지역 AI·가상융합 생태계 기반 강화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 콘텐츠 피지컬 업(UP)' 주제 '전주 콘텐츠 페어' 개최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흥원 신산업융합지식산업센터에서 '전북 콘텐츠 피지컬 업(UP)'을 주제로 한 '2025 전주 콘텐츠 페어'를 개최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전주 콘텐츠 페어'는 지역에서 개발된 기술융합형 디지털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진흥원의 대표 행사이다.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AI)이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피지컬 AI'가 급부상하고, 가상환경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한 물리적 체험성 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한다.

특히 첫날 행사에서는 전주시와 진흥원, 지역기업 5개사(△㈜편의 △㈜편웨이브 △㈜센스게임즈 △㈜라온네스트 △㈜글로벌렉스)가 향후 5년간 100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흥원 신산업융합지식산업센터에서 '전북 콘텐츠 피지컬 업(UP)'을 주제로 한 '2025 전주 콘텐츠 페어'를 개최한다.

억 규모의 지역 가상융합산업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업은 지역 가상융합산업 확장과 일자리창출 등 민·관 공동 성장을 목표로 각각 20억 원씩 가상융합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전주시와 진흥원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전문인력 매칭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진 토크에서는 조민호 (사)전북콘텐츠산업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지역 XR기업이 체감하는 산업 변화와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토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현우 ㈜편웨이브 대표이사과 이호근 (주)에스지오코리아 대표이사, 김정욱 (주)엔비오우핀토스미디아 대표이사 최주용 (주)뉴토 대표이사, 안소영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기술 변화 대응 전략과 정책 제언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올해 콘텐츠 페어에서는

28일까지 이틀간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 제작지원 콘텐츠 7종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전시 콘텐츠는 △(주)편의의 실시간 AI 비전 행동분석 XR CQB 전투훈련 시뮬레이터 △(주)편웨이브의 AI연동 XR간호실습 융복합 솔루션 △(주)센스게임즈의 반력식물과 소통하는 감성 인터페이스기반 XR 가드닝 힐링 콘텐츠 △(주)라온네스트의 백제 무왕 일대기 VR 체험 콘텐츠 △(주)글로벌렉스의 반력동물 교육훈련 VR콘텐츠 △스타라이크(주)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캐릭터 콘서트 △올모스트올웨이브의 '케이타운컬즈' 글로벌 K-드라마 제작 및 AI 기반 드라마/영화 콘텐츠 등이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북과 전주의 가상융합거점 시설인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구축 및 거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AI·가상융합 생태계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완주·전주 통합 추진, 현재 법적 절차 진행 중”

우범기 전주시장,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통합논의 중단할 수 없어”



우범기 전주시장(사진)이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 관련, 완주군민의 주민 연서에 의해 시작된 사안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우 시장은 2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결 사안을 담은 권고 절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지난 2024년 6월 완주군민 주민 연서에 의해 건의된 사안”이라며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통합논의를 중단할 수 없다”고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외연 확장을 통한 발전 전략이 필수인 우리 시는 완주군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전북도 내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기 위해 완주와의 통합을 절실한 마음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북도와 협력하여 대내외적으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민선 8기나 9기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아직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시의회의와 소통도 강조하면서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 현장에 더 가깝게 있다”면서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기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정에서 놓치거나 빠트린 부분을 시의회가 지적하면 그때그때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그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덕진구, 2026년 지적제조사사업 본격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성)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26년 지적제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제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 지적공부의 경계·면적을 최신 측량 기술로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도 덕진구 지적제조사사업은 금암동·여의동·금상동 3개 지구, 총 665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비 1억 8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지구로 지정된

여의동과 금상동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측량을 전담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이날 중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람·공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가까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버스정보시스템(BIS)과 구청 누리집,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건지도서관, 찾아가는 시니어 독서치유 프로그램 마무리

전주시 건지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전주지역 8개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된 '찾아가는 시니어 독서치유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니어 독서치유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전주시민독서학교의 '노인인지 책놀이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고 '노인인지 책놀이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들이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책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권희성 기자



동절기 신속하고 빈틈없는 제설 시스템 가동

전주시 덕진구, 최대 규모 도로 설해 대책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성)는 겨울철 시민 안전과 폭설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2025~2026년 동절기 도로 설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번 설해 대책에 총 8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설해 취약 구간에 대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제설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중점 설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설 특보 발효 시 즉각적인 비상 체제에 돌입해 교통마비 없는 안전한 겨울철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구는 폭설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숙원된 제설 인력 56명(직원 25명, 운전원 2명, 보수원 8명, 입차 21명)을 확보하고, 대형 제설 차량 21대(덤프 11대, 살수차 10대)를 입차하는 등 제설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의 핵심인 제

설 자체도 충분히 확보해,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구체적으로 열화칼슘 1000톤과 소금 1200톤 등 총 2200톤의 제설제를 준비했으며, 골목길 등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살포할 수 있도록 열화칼슘(10kg) 4800포대를 등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상습 결빙 구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 열선 10개소 및 염수분사장치 1개소를 강설 예보 시 운영하고 있다.

또 제설 살수 차량의 중간 보급을 위해 외곽지역 주요 거점 4곳에 염수 저장 탱크를 운영하는 등 첨단 자동 제설 장치를 적극 활용해 제설 능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구는 동절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원 하천 아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한파로 인한 동파가 우려되는 시설물도 별도로 점검·정비해나가고 있다.

더불어 공원 내 맨발 걷기 길에는

겨울철 이용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세족장 10개소와 염수대 31개소를 동과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원·하천 화장실 41개소의 난방기와 욕의노출 수도관, 계량기 등 동파 우려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보존재를 정비하는 한편, 하천 진입로와 산책로 상습 결빙 구간에는 제설제를 비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동절기 아와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관용차량 정비 △화책과 장갑 등 방한용품 지급 △기온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 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 한랭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0월부터 염수 분사장치와 염수통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설한 185개소에 모래를 배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달 초에는 제설 차량 임차 계약과 제설 자체 구입을 완료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임차 차량에 살포기 및 삽날을 장착해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상태를 갖췄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평가보고회 가제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형석)는 27일 전주 아리랑하우스에서 각 동별 팀장과 단체로 구성된 '좋은이웃들' 봉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좋은이웃들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사업 평가와 더불어 주요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한 해 동안 취약계층 발굴에 헌신한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 한 해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공로가 큰 봉사자 3명에게는 우수 발굴 봉사자 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올해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총 71가구에 세탁기와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지원을 포함한 긴급 지원을 진행했다. 특히 민간 자원 950건을 연계하며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도록 힘써왔다.

/권희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진포건강미
(군산농협)



미성청결미
(서군산농협)



못잊어신동진
(옥구농협)



옥이슬
(옥산농협)



아리울
(동군산농협)



큰들의꿈
(대야농협)



옥토진미
(회현농협)



군산짬뽕 라면
(군산원예농협)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원천원 지부장



군산농업협동조합
박형기 조합장



서군산농업협동조합
김기수 조합장



옥구농업협동조합
전봉구 조합장



옥산농업협동조합
박국석 조합장



동군산농업협동조합
박경근 조합장



대야농업협동조합
한전수 조합장



회현농업협동조합
김기동 조합장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고계곤 조합장